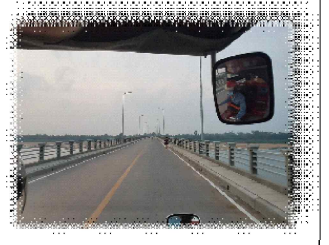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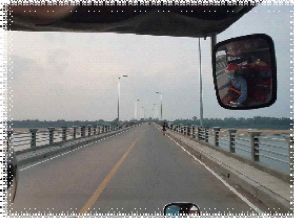
하박국네 이야기 2018. 4

E-mail : kahh1691@hanmail.net 연락처 : 070-4643-7633 (인터넷 전화)
(855)096-345-5024 / 096-358-6300 (캄보디아)
카카오ID : kahh0691 후원계좌 : 884-06767-266-01 씨티은행 가형호
502-910658-70507 K E B 하나은행 가형호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 : 27 - 28)



이제 4월이면 한국은 산과 들에 꽃들이 만발하고 있을 진달래와 벚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 캄보디아의 계절은 건기와 우기가 계속 반복되다보니 생각과 감각이 멈춰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면 한국 땅이 얼마나 좋고 축복받은 땅인지... 새삼스럽게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곳 캄보디아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자연식품과 온갖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도 받아 누리지 못하고 버려져 있는 곳들이 얼마나 많은지... 마을의 대로가 절을 통과해야 하는 생활이 절중심이 되어있는 이상숭배와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믿음과 신앙의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 결코 바른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마음이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녀석은 어느 정도 잘 훈련하면 아주 좋은 일군이 되겠다고 생각하면 기대를 물리치고 떠나고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한 아이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속을 썩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에 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보다 더 못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데 나는 판단하고 더욱더 품고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정도인데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생각하던 안하던지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제 대나무로 건너가던 길이 이제 큰 섬을 연결하는 콘크리드로된 다리가 완공되어 저서 이제는 어렵지 않게 섬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나무 다리로 차나 오토바이가 들어가는 것은 옛날의 역사로 사라지고 올해부터 사람만 건너갈 수 있는 조금만 대나무 다리만 세워졌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 캄보디아에 믿음의 대로가 열려서 믿음의 많은 일군들이 세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즘에 인터넷을 통하여 벌어지는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서 저도 한때는 현 정부가 아주 잘 못된 사회주의 사상에 빠져서 완전히 잘 못 가고 있고 왜곡된 방송, 왜곡된 인터넷 정보들이 널려있는 것을 보면서 비판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갑자기 이러한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현 정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도 마땅할 일이 아닌가는 생각이 들면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죽겠구나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다윗처럼 죄를 범했을 때 나단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은 왕의 신분으로 죄를 간과하고 무시하며 나단선지자를 처치할 수 있는 상황 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였던 다윗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죄를 사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성경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과 나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진심으로 나아갈 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 주일예배 ♥



4월 첫 주 부활절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행사는 없었지만 예배를 마친후에 계란을 나눠주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하고 결국 익힌 계란을 나눠주는 것인데 정말 이것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어필이 될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하찮은 계란에 비유한다면 너무나 큰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란주는 것도 내년에는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란을 준다고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계란주는 날로 이들의 의식속에 박히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빵과 복음을 함께 주게 되면 거의 다 빵만 보게 된다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 그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전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주는 도움은 오히려 그들에게 독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중국인 명절행사로 조상묘 앞에서 자신들의 소원을 비는 첸맹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는 조상묘 앞에서 돈이 필요하면 가짜돈을 가지고 와서 태우거나 자동차가 필요하면 자동차 장난감을 태우거나 집이 필요하면 집 모양의 장난감을 태워서 자신의 소원을 비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폭죽을 묘에 설치해서 터트리는 일까지 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소리 때문에 동네가 시끄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가 있으면 거의 대부분 그 행사에 참여한다고 예배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이곳 캄보디아의 가장 큰 명절인 쫄츠남이 있는 주입니다. 이번 주가 되면 시골교회는 주일예배가 거의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대부분 절에 가기 때문에 교회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예배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날은 주일 예배를 아예 쉬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우리 학사아이들하고 약속하기를 한 사람이라도 예배에 나오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가르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기에 학사 아이들도 쫄츠남에 고향에 가지만 꼭 주일예배는 와서 드려야 한다고 가르쳤기에 주중에 고향에 갔다가 토요일까지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감사하게도 쫄츠남에도 아이들이 보내주셔서 예배를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면 주님의 좋은 일군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경공부 ♥



아까라캄은 캄보디아 글씨를 쓰고 읽는 것을 하기위해서 성경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글자를 배우는 일석이조가 되는 교제입니다. 캄보디아 성서공회에서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하는 책인데 어느덧 아이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5명으로 시작한 것이 이제는 신청자가 3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까라캄은 1, 2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6개월 이면 이 과정을 마치고 수료증까지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꾸준하게 나와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반 정도 되고 그 나머지는 들쭉날쭉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주중에도 와서 일주일에 5번 정도 해야하는데 아이들이 보충수업과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주일밖에 할 수가 없어서 기간이 더 배우는 기간이 길어져서 이러한 부분에서 아이들이 흥미를 잃지는 않는가하는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중에도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혼자서 읽고 쓰기가 제법 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일이 헛되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드렸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한 5살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아까라캄을 배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서 좋은 책들을 준비해서 읽어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아이들이 책에 대하여 더욱더 친근해지면 좋은 교훈들도 얻을 수 있고 이야기 성경이나 인물 성경 책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더 친숙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아이들에게는 교리를 가르침으로서 올바른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일은 이러한 큰아이들이 농본기가 되면 여지없이 농사일에 투입되어서 주일예배에 빠지는 일이 태반사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되어지고 세워져야할 때 세워지지 않음으로 진정한 일군으로 세워지지 않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자라나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귀한 믿음의 일군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도제목 ♥

1.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역이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군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꺼트메이 섬에서 하는 예배후 교리공부와 아까라깁(캄보디아 글자 공부와 함께 성경말씀을 배우는 교제)책 읽어 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며 더욱더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믿음의 귀한 일군들로 성장하며 자라날 수 있게 하소서.

2. 큰 섬(꺼쏘띠) 지역과 작은 섬(꺼트메이) 두 지역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기쁨의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소서. 올해에 좋은 예배의 처소가 잘 준비되어지게 하소서. 큰 섬지역도 예배 처소가 2-3군데 더 필요한 실정이지만 필요한 사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이일들을 함께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3. 두개의 섬에 예배드리기 위해 주일 새벽에 출발하여 사역지로 들어가게 되는데 오고가는 모든 길에 안전과, 특특이에 짐을 싣고 섬에 들어가고 있는데 안전운행 할 수 있게 하소서. 여러분들의 기도로 큰 섬을 잇는 콘크리트 다리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들어가는 길이 비포장한 곳들이 곳곳에 많이 남아있는데 이곳도 속히 포장완공이 되며 작은 섬을 잇는 다리도 놓아질 수 있게 하소서.

4. 요즘에 계속적으로 느끼는 것은 매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온톤 불교문화 속에서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춘기 이전에 아이들이 신앙이 세워지지 않으면 사춘기가 지나면 거의 신앙인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생정도 아이들을 데려다가 신앙인으로 훈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중학생들 학사도 시작해야 함을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적인 기도와 후원의 동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중학생은 생활비와 학비가 한 명당 약 $75\$ \times 4 = 300\$$ 이 들어가는데 이모든 것들을 채워주소서. 여자 사역자도 보내주셔서 여자 어린아이들을 잘 보살피며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게 하소서. **(중학교부터 학사를 하기위해서 한 사람당 10년의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한명씩 자매 결연을 하여서 후원과 기도를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메일이나 카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 씨타 학생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올해 고등학교 졸업시험에 합격하고 대학교 입학 하여서 필요한 전공을 배워서 그것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일군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면 생활비와 학비가 한 달에 약 200\$이 들어가는데 모든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소서.

6. 다란청년이 성경공부를 통하여 더욱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며 거듭남의 비밀과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군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매주일 특특이 운전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학업에도 지혜를 주셔서 잘 마무리 하게 하시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잘 세워지게 하소서. 내년부터 4학년이 되는데 학생의 수가 적어서 주말반(토요일과 주일) 하루 온종일 학교에 공부하러 가야하는데 그러면 주일 사역을 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지혜를 주셔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아니면 주말반이 주중 반으로 바뀌게 하셔서 주일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소서.

7. 모든 가족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하시고, 영적분별력과 성경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하은, 하원, 하영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지며 필요한 학업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시며 날마다 말씀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고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소서. 그리고 올해 주 파송교회가 잘 세워지게 하소서.